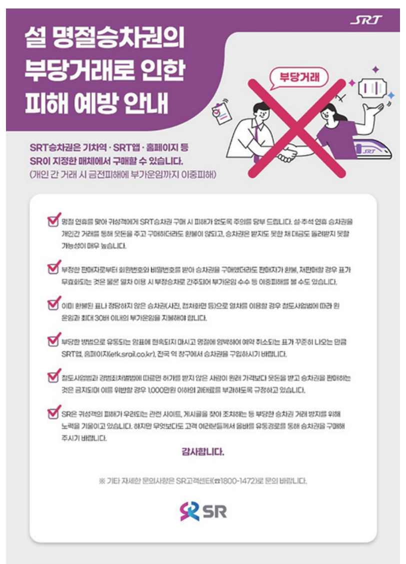
SRT,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



매크로 등 부당한 좌석 확보에 '엄정대응'
중고거래 사이트 협력 부당거래 모니터링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올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에스알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크로(Macro)는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개의 명령어를 키 하나에 묶어 자동·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이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확보한 승차권이 중고거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시중에 암표가 거래될 경우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실시하겠다는게 에스알의 설명이다.

따라서 에스알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비정상적 구매이력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의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세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 되며 불법 승차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한다.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아이들 타고 있었으면 끔찍"

15일 밤 경기 포천서 차량 44대 연쇄 추돌
1명 사망, 36명 경·중상…원인은 블랙아이스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겨울철 도로 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민간 도로 교통정보 업체와의 정보 교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 포천 소흘읍 이동교리 포천 방향 구리포천고속도로 축석령 터널 인근에서 차량 44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3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1대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사고가 나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아이스 현상을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실제 사고 당일 포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부터 눈이 내렸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얼어붙어 미끄러운 도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아이스란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을 말한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매연이 함께 얼면서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주행 중 발견하기 힘들어 '도로 위 암살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처럼 겨울철 도로 결빙 현상으로 인한 사고는 한번 사고가 나면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 위 결빙으로 일반 노면보다 차량의 미끄러짐이 심해 다중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도로 서리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889건 발생했다.

특히 겨울철 사고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최근 5년간 월별 사고 건수(인명피해)는 ▲11월 258건(510명) ▲12월 1627건(2858명) ▲1월 1983건(3369명) ▲2월 929건(1588명) ▲3월 92건(176명)이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1건당 2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일반적인 날씨(건조)상태에서의 사고 1건당 인명피해는 1.5명으로, 12월~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블랙아이스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2019년 12월에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 양방향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트럭과 승용차 등 20여 대가 잇따라 충돌했고 일부 차량에선 불이 나, 2시간 반만에 꺼지기도 했다. 사고 원인으로 '블랙아이스'가 지목됐다.

설날을 6일 앞두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 소식이 들려오자 시민들은 귀성길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운전 중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손목에 부상을 입은 직장인 손모씨(38)도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확 미끄러지더니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며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설날에 시골에 내려갈 때 가족들이 다 같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아이를 가진 직장인 최선호(35)씨도 "이번 설에 전북 김제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가족들과 다같이 내려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 소식을 듣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하게 기차를 타고 내려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염화칼슘 등 블랙아이스 예방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와 함께 민간 네이게이션 업체 등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운전자들이 블랙아이스 지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블랙아이스 위험 지역 부근에 미끄럼 방지용 제설 염화 칼슘 등을 뿌려놓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또 강 교수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에게 블랙아이스 지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현재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업데이트는 민간업체보다 그리고 전파가 잘 안된다"며 "운전자 대부분이 쓰는 티맵이나 카카오네비 등 민간 도로 교통정보 제공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블랙아이스 지점 부근에서 경고를 울리는 등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수조에서 인사드리는 설 맞이 인사 설 연휴를 닷새 앞둔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쿠아플라넷 광교 수조에서 아쿠아리스트들이 수중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강화 한다"

앞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단팀'의 결과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팀을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선안에는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벌칙(과태료) 조항 신설을 통해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 계획이 담겼다. 현행 제도도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에서 수방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과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고시로 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등'이던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하고 신규 시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업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 및 방법,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해설집도 개정했다.

아울러 지하도로 등 국토부 소관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등 5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및 수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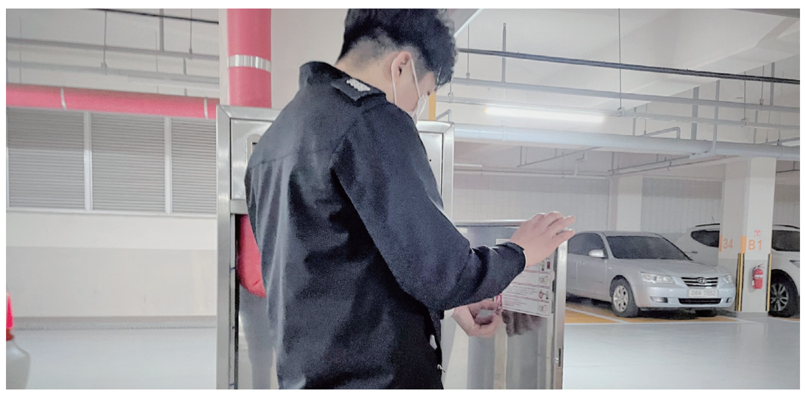
보성경찰, 설 명절 대비 협력단체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대비하여 협력방범 강화를 위한 보성군자율방범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보성=김덕순 기자

완도해경, 횡간도 인근 침수선박 무사히 구조 완료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소안면 횡간도 인근해상에서 화물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에 나서 인명과 해양오염 피해 없이 구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옥내소화전 4개 국어 표기 사용설명 스티커 부착

광양소방서는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4개 국어 동시표기 옥내소화전 설명 스티커 부착에 나선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강진소방, 설 연휴 대비 화재취약대상 현장방문 안전컨설팅

강진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연휴 대비 다산베아체 골프리조트와 동원F&B 강진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소방, 옥내소화전 외국어 동시표기 사용설명서 부착

담양소방서는 관내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외국인을 고려한 옥내소화전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사용설명 스티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동부소방,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1일 오전 대인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